



ADMA

on line

2025년 4월

부활절을 향한 희망을 품고

요약

사설

- 3

희망으로 부활을 향하여.

양성 여정

- 4

하느님의 천사. 섭리의 섬세한 보호자.

친숙한 문자

- 6

F 가족처럼.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 7

아르테미데 자띠.

가족연대기

- 8

- 프라샤르본 - 마음의 연결망.
 - 미얀마 - 2025년 생활지표.
 - 아비장의 아드마 지회에 감사.
-

월간 기도지향

- 9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위하여.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



희망으로 부활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ADMA 온라인은 40일 간의 사순시기 여정을 걸으며,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와 연간생활지표에서 빛을 받아, 특별히 올해 사순시기는 희년의 정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사순절은 희망의 여정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여,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부활을 거행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런 세상 안에서 믿고 희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희망의 해인 이 한 해에도, 점점 더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뉴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증오를 숨겨 놓고, 가짜 평화라는 환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거나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와 돈을 가진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유산인 생명의 가치는, 마치 빈 공간처럼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는 그곳을 쓸모 없는 것들과 쾌락, 외모, 나르시즘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돈 보스코의 자녀로서,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마치 젊은이들이 꿈 꿀 기회를 박탈당한 것처럼 보여, 이 고통과 불확실성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형제애를 실천하는 사순시기의 이 여정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며, 그 안에서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돌아가게 하며, 부활의 기쁨 속에서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여, 이를 인류와 우리가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는 우리의 사순시기 여정에서 부활의 승리를 향한 지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교서에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우리의 사랑이자 희망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살아 계시며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죽음은 승리로 바뀌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믿음과 위대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회개에로 부르시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심은 희망에 대한 회심입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위대한 약속인 영원한 생명의 신뢰에 대한 회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구원을 갈망하며 하느님께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나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희망을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며, 정의를 위한 노력, 형제애, 지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며,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는가?

희망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순시기의 마지막 여정을 동반해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ADMA 평의회원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로운 부활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트레조 신부,
SDB 발도코 아드마 영적활성자.

레나토 발레라,
발도코 아드마 회장.



양성 여정

하느님의 천사. 섭리의 섬세한 보호자

«하느님의 천사, 나의 수호천사여»

이 기도를 바치며, 어린시절의 상상력 넘치는 광경을 떠올리며, 다시 어린이가 된 듯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수호천사의 기도는 어린이들의 장난이 아니며, 청소년기가 되면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천사는 순수한 영적 존재로, 물질적인 몸을 지니지 않았으며, 죽지 않는 존재로, 뛰어난 지력과 확고한 의지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수호천사를 죽은 사람의 영혼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수호천사는 착한 천사, 하느님의 천사입니다. 하느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임무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책임입니다. 그가 우리의 영혼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는 변하거나 늙지 않으며, 그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수호천사를 얼마나 신뢰하실까요? 그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더 귀한 존재, 죽지 않는 존재,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천사를 곁에 두고 있으며, 천사는 그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라고 성 바실리오 대제는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되며, 그 이유는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가 우리 각자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고 있으며,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천사의 보호에 맡기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착한 천사가, 큰형처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만을 영원으로부터 기다려온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수호천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한 자애로, 우리가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천사들이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좋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 여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이 임무를 얼마나 한 사랑으로 수행하는지, 작은 아기들에게 얼마나 다정한 지 보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천사는 나의 수호자로 정해져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며, 동시에 항상 하느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그분의 얼굴을 관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마태 18,10). 우리의 수호천사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이기도 합니다. 수호천사는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비추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기도의 시작으로 수호천사를 부른 후에, 즉시 수호천사에게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나를 비추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이것은 수호천사가 우리를 위해 수행하는 주요 임무들입니다.

우선 수호천사는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고 («비추시고»), 좋은 생각을 붙여넣어 주십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뿐 아니라,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수호천사를 부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호천사는 우리를 영혼과 육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지켜 주시고»). 이것은 그의 특별한 임무입니다. 가능한 위험에서 피하게 하거나(신의 허락 내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거나 차를 운전할 때, 도구들을 다룰 때, 혹은 위험한 길을 떠날 때, 수호천사를 부르는 습관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자기 옆에 이 천사가 함께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는 그의 아름다운 영적 지도서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은혜로운 천사에게 큰 신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옆에 한 영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조차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천상 영혼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친구처럼, 형제처럼 우리를 돌봅니다. 결코 자신이 적들과 싸우는 데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열어놓고 털어놓을 영혼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는 이 하늘의 메신저에게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서한집 III, 82-83쪽).

수호천사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우리가 따라야 할 방향에 영감을 주며(«이끄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를 교정해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유 의지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가장 좋은 길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소중한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드리며, 지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재합니다. 이 점에서 «다스리소서»라는 마지막 간청은 우리의 수호천사가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돈 보스코는 수호천사가 그가 보호하는 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수호천사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베푸는 돌봄은, 결국 우리가 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는 우리가 죽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영혼이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깨어 있게 합니다» (수호천사의 신심, VIII).

천사의 보호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특히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함께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수호천사들이 그들의 보호에 특별히 신경 쓰는 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첫영성체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어린이의 영적 삶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그 어린 영혼이 천사의 빵이라 불리는 성체로 양육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이의 수호천사에게는 이 날이 큰 영광이자 임무인 것입니다! 수호천사는 어린이가 성인이 되어도 믿음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그가 하느님의 자비로 맡은 임무는, 하느님께서 나를 그에게 맡기셨음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느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큰 속성인 «자비»가 암시하는 섬세한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깊은 신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일부 성인들은 천사와 특별한 관계를 가졌으며, 그의 천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녀 젤마 갈가니는 자신의 수호천사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지녔으며, 그를 자주 보고 대화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작은 잘못이나 잘못된 고백에 대해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강론을 준비할 때 자주 청중을 바라보며 그들의 수호천사들에게 그들이 보호하는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성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는 앞에서 언급한 편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덧붙입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동반자를 잊지 마세요. 그는 항상 곁에 있으며,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를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이 얼마나 달콤한 친밀감이며, 오, 이 얼마나 복된 동반입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이 천사를 마음속에 두고, 그의 존재를 자주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그의 좋은 동반자가 되십시오. 그의 결백한 시선을 더럽히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의 존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는 이처럼 섬세하고, 민감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그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베푸는 은총의 효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한집 III, 83쪽).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수호천사께 드리는 기도»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어린이의 단순함과 성숙한 나이에서 오는 믿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면, 이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르코 파네로 신부, SDB



친숙한 문자

F 가족처럼

현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그리스도교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교적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만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느님 체험 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사물 안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찾는 “제2세대” 교육마저 점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황청에서는 “교육의 위기”에서 “교육적 경종”으로 넘어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치 있고 확실한 것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새롭게 “젠더 이데올로기”의 혼란과 인류학적인 것으로서의 위협, 즉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퇴화

젠더 이론과 정책은 이제 점점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하느님께서 창조에 부여한 질서를 지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고자 하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히 생소한 이론을 마치 일반적인 진리나 확립된 과학적 지식인 양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법적인 강요와 언론의 협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맞서 싸운다는 구실로, 이른바 ‘GLBT 커뮤니티’(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신념이 광범위하게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개의 성별’을 인정하지 않고, 성적 선호의 관점을 촉진하며, ‘남자와 여자의 친밀한 삶과 사랑의 공동체’로 정의되어 온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모든 형태의 정서적 연대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GS 48)

이탈리아에서도 전통적인 가족, 즉 자연적인 뿌리와 거룩한 기원을 지닌 가족의 현실이 오늘날 급격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 행정 네트워크는 지역 보건 서비스, 지방 자치 단체, 공립학교와 GLBT(성소수자 중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 단체들 간의 교육적 활동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미 하원을 통과한 반동성애법(omofobia: 동성애자나 동성애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의미) 제안의 일부 조항은 학교에서 일반적인 가족 개념에 대한 불관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연적인 가족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해지면서, 교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11년, 베네딕토 16세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 가운데 가족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성교육이나 시민 교육 과정의 참여를 강요하고, 이



과정들이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인간과 삶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지만, 실제로는 신앙과 올바른 이성과는 반대되는 인류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하느님의 마음에 따른 가족의 진실.

가족은 그 차원을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관계와 동일시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고유한 관계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 현실의 구체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세대 간 축, 부부 축, 부모 축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를 연결하고 서로를 촉진하며, 함께 인간의 시간과 공간 현실을 사랑의 의미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생명의 교환으로 정의하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성적 차이, 생성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랑,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사랑의 친밀감을 열어주는 다산성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구체적인 악은 이 세 가지 차원과 가족을 부정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억이 없는 정서적 집합체, 차이에 무관심한 가족, 진짜 자녀가 아닌 아이들, 이는 자유를 “자율”로 잘못 이해하여 발생된 비정상적인 결과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유는 자녀로서의 자유이며,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로 존재하고, 그 사랑이 선행하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사랑의 질서”가 존재하며, 이는 지적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ove is love”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내세워 어떤 행동이나 감정적 결합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오히려 가족은 사회를 형성하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사회가 존재하려면 그 사회의 기본적 세포인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닌 단순히 자연적인 진리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세속화된 국가들에서도 성별 이데올로기의 “단일 사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얼마 전 영국에서도, “성직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게이 기자 패디 매닝이 성별 정책의 강제성에 대해 자신의 실망을 표명하며, 기본적인 현실을 존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자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성별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모든 환상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아이들이 부모님을 가질 권리를 무시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결혼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중요한 생명의 효과를 낳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낳고 기르기로 약속하는 결합”이라는 사실을 잊고 “모든 관계를 결혼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그 관계가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베르토 카렐리 신부, SDB

(출처: 로베르토 카렐리 - 친숙한 문자)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아르테미데 자띠



아르테미데 자띠 (Artemide Zatti)는 1880년 10월 12일, 레조 에밀리아(Reggio Emilia) 주 보레토 (Boretto)에서 농부인 루이지 자띠 (Luigi Zatti)와 알비나 베키 (Albina Vecchi)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노동과 희생에

익숙했다. 아홉 살 때 이미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도왔다. 1897년, 가난에 시달리던 자띠 가족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나 바히아 블랑 카(Bahía Blanca)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아르테 미데는 살레시오회 신부들이 운영하는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본당 신부인 카를로 카발리 (Don Carlo Cavalli) 신부를 도우며 함께 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살레시오회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고, 칼리에로 주교 (Mons. Cagliero)의 허락을 받아 지원자로 받아들여졌다. 스무 살이 된 그는 베르날 (Bernal)의 분원에 입회하여,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학업을 열심히 따라잡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섭리는 그에게 결핵을 앓고 있던 한 젊은 사제를 간호할 임무를 맡겼는데, 1902년 그 사제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바로 그날이, 아르테미데가 성직복을 받아야 하는 날이었는데, 그도 같은 병에 감염되고 말았다. 그가 집으로 돌아간 후, 카발리 신부는 그를 비에드마 (Viedma)의 선교 병원으로 안내했다. 비에드마 병원의 책임자인 에바리시오 가로네 (Don Evarisio Garrone) 신부는 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르테미데는 그와 함께 도움이신 마리아 (Maria Ausiliatrice)께 만일 건강을 되찾게 된다면 평생 병자들을 돌보겠다는 약속으로 치유의

은총을 청하여 얻어내게 된다. 그 기도는 이루어졌고,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먼저 그는 병원 내 약국을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거기서 그는 가로네 신부의 논리를 배웠다. 그것은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돈을 내는 것’이었다. 이후 가로네 신부가 선종하자, 아르테 미데는 병원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1908년, 그는 종신 서원을 발했다. 그의 환자들을 위해 바치는 절대적인 헌신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았고 존경했다. 병원의 전문 인력들에게 그는 훌륭한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누군가 그의 하루 일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묵상과 미사. 병동 순회. 이후 자전거를 타고 도시 곳곳의 병자들을 방문. 점심 후에는 회복 중인 환자와들 열정적으로 ‘보체 경기’를 함.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병원 안팎의 환자들을 돌봄. 밤 8시까지 약국에서 일한 후 다시 병동을 둘러봄. 밤 11시까지 의학 공부를 하고, 마지막 으로 영적 독서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으나 언제 든 응급 호출을 받을 준비를 함.” 그는 정식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1913년에는 새 병원 건립을 주도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병원은 철거되었다. 실망하지 않고 새 병원을 마련했다. 돈보스코처럼 그는 병원의 재정을 ‘하느님의 섭리’에 의존했다. 도움이신 마리아께서는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돈 보스코가 꿈꾸었던 살레시오 수사는 바로 아르테미데 자띠와 같은 성인들을 원하였을 것이다. 1950년, 그는 계단 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요양해야 했다. 이후 몇 달이 지나자 암 증상이 나타났고, 1951년 3월 15일에 선종했다. 그의 유해는 비에드마의 살레시오회 성당에 안장되었다. 그는 1997년 7월 7일에 가경자로 선포되었으며, 2002년 4월 14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다.

기도

오 하느님, 선하신 아버지,
당신께서는 성 아르테미데 자띠를 살레시오회 수사로 부르시어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 안에서 당신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시련의 순간에도 당신을 굳게 믿었으며,



치유의 은총을 받고 행복으로 가득 차, 영혼과 마음에 상처 입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칠 것을 약속했으며, 매일의 노동과 관대한 희생을 통해 충실하게 복음을 살았습니다.

성인들의 하늘에서 빛나는 그를 보는 기쁨이,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증거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의 전구로 우리가 간절히 청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기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지향을 말한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족연대기

프라샤르본 - 마음의 연결망

우리 삶의 중요한 경험들은 마치 산과 같아서, 그 전체를 보려면 멀리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을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2022년 여름, 프라샤르본에서의 경험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가족들을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저는 수많은 인생 이야기,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러는 방식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함께 나눈 말씀의 깊이, 맛보았던 교리 교육, 아름다운 석양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하나의 마음을 잇는 관계 망을 만들어 주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멀리서 지속적인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학교를 찾는 많은 평신도들과 함께 순례자가 되어, 성모님께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만나요!

루크레시아 우리베 수녀, FMA

미얀마 - 2025년 생활지표

2월 9일, 미얀마 살레시오회 준관구(MYM) 본부에서 살레시오 가족 위원회가 미얀마 살레시오 가족 담당 존 감 생 신부의 지도 아래 2025년 생활지표 소개 발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살레시오 가족 소속인 살레시오 수도회,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 아드마회, 살레시오 동문회 등의 다양한 그룹에서 약 11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레오 망 신부(SDB)의 개막 기도와 존 감 생 신부의 환영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돈 보스코 미디어 팀'이 준비한 주제곡과 살레시오 가족을 소개하는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참가자들에게 상영되었습니다. 이후 미얀마 관구장 보스코 니니 신부의 강연이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10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베로니카 모에 모에 수녀(FMA)의 폐막기도와 마지막 축복 기도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비장의 아드마 지회에 감사

아비장(코스타 다보리오) ADMA 그룹이 너그러 운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그룹의 영적 지도자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FMA)의 예세니아 수녀이며, 아프리카 관구 소속입니다(아프리카 서부 관구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스타 다보리오,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포함). 매년 12월 8일, 이들은 ADMA 회원으로서의 소속 서약을 갱신합니다.



월간 기도지향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위하여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아드마 그룹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인간 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우리 시대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